



터질 게 터졌다. 구단주 윤장현 광주시장의 무관심 속에 광주 FC가 존립 위기를 맞았다.

시민 구단 광주 FC는 오는 29일 성남 FC와 홈경기를 치른다. 올 시즌 3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광주가 성남전에서 승리하면 지난해에 이어 1부 무대인 K리그 클래식 잔류에 성공한다. 팀 창단 최다승(12승) 기록도 갈아치운다.

중요한 일전을 앞둔 광주는 25일 호남대와 연습경기를 갖고 필승을 다짐했다. 하지만 훈련이 끝난 뒤 선수단은 혼란에 빠졌다. 월급날이었던 이날 프로 선수인 광주 선수들은 '임금 체불'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광주는 클래식 리그 12개 구단 중 가장 적은 예산을 쓰는 팀이다. 처음 클래식 무대를 밟은 수원 FC가 115억원(시예산 80억·광고후원금 23억)을 쓰고 있지만 광주는 71억원(시

예산 60억·광고후원금 11억)으로 올 시즌을 보내고 있다. 그나마 20억원의 추경 예산에 포함되어 12월이나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이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130억(시예산 50억·광고후원금 80억), 구단주 이재명 시장의 적극적인 지원 사격을 받는 성남 FC는 네이버·차병원 등을 통해 100억원의 광고후원금을 유지하면서 180억원(시예산 80억)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는 2011년 당시 강운태 시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 속에 100억원 이상의 광고후원금을 유지하면서 시민구단

광주FC 임금 체불…터질 게 터졌다

市 관심 저조에 정원주 대표이사 사의 표명

열정 플레이에 관중 늘어도 광고후원금 ‘뚝’

으로의 역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구단주가 윤장현 시장으로 바뀐 뒤 상황이 달라졌다. 구단주의 발길이 뜸해진 경기장에 관중은 늘었지만 광고후원금은 뚝 떨어졌다. 2014시즌 1344명이었던 광주의 평균 관중은 지난 시즌 2188명, 올 시즌 3698명으로 뛰어올랐다. 남기일 감독의 화끈한 스타일에 '특급 공격수' 정조국이

가세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늘었고, 윤정환·고종수·기성용 등을 배출한 축구 도시의 면모를 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강남이 불구경하는 듯한 구단주의 태도에 광주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속앓이만 하고 있다.

결국 2013년부터 광주의 대표이사를 맡아 몰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온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이 최근 시에 사임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정 대표의 조강수에도 구단주의 묵묵부답으로 임금체불 사태가 발생했다.

클럽하우스가 없어 원룸 생활을 하며 눈물 젖은 밥을 먹던 선수들은 연습구장을 확보하지 못해 메뚜기 신세가 되어 어렵게 훈련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원룸 생활은 청산했지만 목포축구센터에 속소를 차리고 면걸을 오가고 있다. 구단 직원들의 월급 지급이 늦어진 적은 있지만 선수단의 임금체불은 처음이다. 광주에는 또 다른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일본 출신의 와다, 니제르 대표팀에서 뛰었던 본즈가 광주의 외국인 선수로 뛰고 있다. 하지만 불어를 쓰는 본즈와 일본인 와다는 예산 때문에 통역 없이 낯선 타국에서 훈련을 하고 경기를 뛰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은 올 시즌 '깃발더비'를 만들며 지역 축구 발전과 흥행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올 시즌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는 구단주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홈 개막전에도 불참한 윤장현 시장이 경기장을 찾은 횟수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다. 물론 매번 잠깐 모습만 비추고 경기 중간에 자리를 떴다.

광주는 포기하지 않는 플레이와 열정으로 K리그 팬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아왔다. 하지만 선수들의 열정만으로는 광주축구 역사를 잇기에 부족하다. 구단주와 광주시가 결단해야 할 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어르신 생활체육축제 25일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제11회 광주시장기 어르신 생활체육축제에서 참가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동구가 '추억의 충장축제'를 내년부터 부분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축제 자생력을 확보한다는 취지지만 도심 공간 곳곳에서 펼쳐지는 충장축제의 특성상 쉽지 않아 보인다.

동구는 내년부터 '추억의 충장축제' 일부 행사를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동구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료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주무대 공간, 거리퍼레이드 관람석, 추억의 테마거리 정도를 부분적으로 유료화하는 것을 고민 중"이라며 "사전 검토를 마치면

충장축제 내년부터 부분 유료화 재추진

주무대·테마거리 등…통제 쉽지 않을 것

경우에 따라 축제 유료화에 대한 용역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구가 이처럼 축제 유료화를 검토하는 것은 축제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콘텐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유료화를 통해 만들어진 수익을 축제에 재투자, 축제의 질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마다 축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수

익확보 여부 등을 평가하는 '자생력'이 중요한 항목인 탓도 있다.

충장축제는 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축제로 선정됐지만 대표축제로는 도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예산은 모두 13억7000만원으로, 자체 수익으로 재투자되는 비용 없이 모두 국비와 시비, 구비로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충장축제 유료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동구는 지난 2014년 충장축제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추억의 테마거리'를 유료화해 입장료를 2000원씩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인근 상인 등의 반발 이후 유료화를 철회했다. 특히 충장축제는 다른 축제와 달리 도심 곳곳에서 열리는 개방형 축제라는 점도 유료화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일정한 진출입로가 없는 관계로 관람객 통제가 쉽지 않아 유료화에 어려운 점은 있다"고 밝혔다.

/김정인기자 k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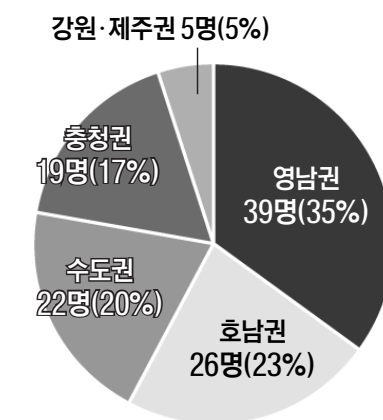
군 장성급 승진 인사 호남 출신 23%

최근 단행된 군 장성급 인사에서 출신 지역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분석해 25일 배포한 '2016년 하반기 장성급 장교인사 분석자료'에 따르면 총 111명의 장성 진급자 중 수도권 출신 22명(20%), 충청권 출신 19명(17%), 영남권 출신 39명(35%), 호남권 출신 26명(23%), 강원·제주권 출신 5명(5%)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5명 중 수도권 출신 1명, 충청권 출신 2명, 영남권 출신 1명, 호남권 출신 1명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한 20명 중 수도권 출신 3명, 충청권 출신 4명, 영남권 출신 8명, 호남권 출신 4명, 강원·제주권 출신 1명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86명 중 수도권 출신 18명, 충청권 출신 13명, 영남권 출신 30명, 호남권 출신 21명, 강원·제주권 출신 4명이었다.

■출신 지역별 장성급 장교 인사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내년도 진급 대기 중인 대령 이상 장교 2800여명 가운데 24%(670여명)가 호남권 출신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장성인사는 균형인사를 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섬·벽지서 가족이 노인·산모 돌봐도 정부 지원

앞으로 섬이나 벽지에서는 가족이 산모, 신생아, 노인을 돌보더라도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서·벽지에서 가족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해도 서비스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지금은 가족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등이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이나 장애인, 산모, 신생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 가정, 장애아동과 장애부모 등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가사·간병, 산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의무 공개 항목 중에서 제공인력의 나이를 삭제해 연령차별의 소지를 없앴다.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사회서비스 영업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받는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처분 사실과 그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연합뉴스

등록번호: 전남·목포·국제-2013-001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 사항

국제결혼 계약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수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바랍니다.

※무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바랍니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이상 시청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1247-7700
0621372-9777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혈당조절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ATP10골드 대한민국특허 제0522532호

ATP10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기력)를 10배높인다는 뜻으로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넘쳐나는 포도당을 60조 개의 세포 속으로 이동 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인의 지친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당뇨특허 2건 등록!

NAVER 백세생활건강 검색

※자세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우송

010-3598-7080

농성동 무등산타워 10층 상가매매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뷔페식당 · 사무실 · 병원 등 최적입지

▶수의계약진행
감정가 : 32억원
매매가 : 22억원

▶전용면적 : 1,070㎡(10층 전체)

문의

국제자산신탁
02-5202-3087
완도금일수협
062-364-2018

2017학년도 전기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21세기 글로벌 엔지니어 리더에 도전하십시오!!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의 실시 [주1~2회, PM 7~11]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정규 공학석사 학위과정을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학점 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논문제)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알찬 교육 프로그램 제공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도입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입학원서 작성	2016. 11. 3.(목) ~ 2016. 11. 18.(금) 09:00~18:00
입학원서 접수	2016. 11. 3.(목) ~ 2016. 11. 18.(금) 09:00~18:00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요)
(제출서류 포함) 청구	2016. 11. 3.(목) ~ 2016. 11. 18.(금) 09:00~18:00
전형일시	2016. 12. 7.(수) 10:00~
합격자 발표	2016. 12. 22.(목) 11:00(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
건축공학/기계공학/산업공학/재료공학/전기전자컴퓨터공학/토목공학/화학공학/환경공학/에너지공학/환경농업학/식품·차산업학/지역환경자원공학/전자컴퓨터공학(계약학과)

■ 문의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530-1607 [팩스] 062-530-194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a.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DUSTRY TECHN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